

南滿洲지역 청동기시대문화와 민족문제에 관하여

卜 箕 大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원

1.머 리 말

滿洲는 한국사의 여명기부터 지금까지 한국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 관계는 현재보다는 한국사의 상고시대나 고대시기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한국 학자들은 이 지역의 역사 연구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현대의 정치적 이유로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정치적인 문제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상고사나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큰 실마리를 풀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남만주의 청동기시대문화에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다. 이 문제는 필자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매우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지역의 각 문화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동시에 이 지역의 문화들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가늠해보도록 한다.

만주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매우 복잡하다. 문화의 성격은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시대적인 차이 등이 얽혀 매우 복잡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글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지역을 구분하고, 그 지역에 속하는 문화들을 시대적으로 분기하여 정리해나가도록 한다. 먼저 본 글에서 다룰 지역적인 구분과 시대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먼저 지역적인 범위 설정이다. 남만주의¹⁾ 지역적인 범위는 동으로는 북한의 압록강, 서로는 내몽고동남쪽에 있는 七老圖山에 다다른다. 남으로는 渤海灣, 북으로 吉林省남부지역에 이르는 지역을 편의상 남만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만주는 遼河를 중심으로 그 동쪽은 “遼東”, 그 서쪽은 “遼西”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대문제이다. 만주지역의 청동기시작연대는 지역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요서지역이 요동지역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발전양상에 따라 만주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기원전 24세기 무렵부터, 기원전 14세기 전후한 무렵까지를 전기로, 그후를 후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1) 중국에서 현재 만주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동북”지역으로 부르고 있다. 필자 역시 지명 사용에 있어서 현재의 지명이나 지역표시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동북”이라는 표현은 중국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만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II. 요동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

요동지역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요하이동지역을 말한다. 요동지역의 고고학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중원지역이나 인근 지역인 요서지역과 비교해볼 때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전까지의 현실이었다. 이는 그 중요성이 덜했던 원인과 국경지대 그리고 산악지대 등 여러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 중국 고고학계가 이 지역에 관심을 두었고 또한 한국학계나 일본학계 등에서 높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 지역을 문화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역시 몇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연적인 환경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요동지역은 동쪽과 서쪽의 자연환경이 다르다. 동쪽은 長白山脈의 등줄기가 이어져 내려와 형성된 산이 많은 지역이다. 이 산들은 遼寧省 本溪市와 天山지역에 굽이돌면서 험한 산지를 이루고 있다. 천산남쪽지역은 요동반도가 형성되어 남만주지역과 山東半島지역의 문화교류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천의 발달도 이 산 계곡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문화의 발전도 이러한 자연 지리적 여건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구릉성유적과 동굴유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서쪽은 주로 瀋陽일대를 말하는데 평원이 형성되었는 지역이다. 이 평원은 醫巫闾山남쪽을 통하여 요서지역의 평원과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현상인지는 몰라도 이 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는 요서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동지역의 문화권은 위와 같은 자연환경에 따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요동지역전기청동기문화

1) 요동산지문화

(1) 馬城子文化

요동지역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청동기시대문화는 "마성자문화"이다. 이 문화는 그 주변 지역의 같은 시기문화 그리고 문화의 연원관계를 고려해볼 때, 그리고 요동 및 한반도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와 비교해볼 때 매우 중요한 문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요동지역 청동기시대문화는 마성자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문화 이름은 遼寧省 本溪市 山城子公社 廟後山유적이 발굴되면서 "廟後山文化"로 이름 지어졌다.²⁾ 그후 본계시 본계현 마성자촌 유적이 발굴 정리되면서 "마성자문화"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³⁾ 이 유적의 주요한 분포지는 본계시 일대와 太子河상류 양안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동으로는 丹東지역까지, 서로는 서북으로는 무순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화의 주요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덤은 이 문화의 가장 큰 특색으로 태자하 양안의 석회암 동굴 안에 만들었다. 이를 "동혈묘"라고도 부른다. 이 무덤을 만드는 특징은 땅을 파거나 흙무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동혈묘에 수십구의 시체를 매장하였는데 이는 가족묘로 볼 수 있다. 매장 방법은 대부분이 단인장이고 합장은 적

2) 李恭篤, 「遼寧東部地區青銅器文化初探」, 『考古』, 1985年 第6期.

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1994.

었다. 합장의 경우 여성과 어린이가 합장되어 있었다. 주검의 머리 방향은 일치하지 않았고 주검이 놓아진 상태도 일정하지 않았다. 장법은 간골장으로 화장한 것과 화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뼈를 선택하여 화장한 것은 2차장에 속하고 동굴안에서 화장한 것은 1차장에 속한다. 화장을 한 것에도 차이가 있는데 나이, 신분, 성별 등을 구별하여 연료의 많고 적음 그리고 화장시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검들이 겹겹으로 쌓인 특징을 볼 수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돌로 묘실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간혹 나무장구의 흔적도 보였다. 무덤의 꺼묻거리는 질그릇과 돌연장 그리고 짐승뼈를 꺼묻었다. 질그릇은 실용기와 명기 등이 있었는데 많고 적음이 있었다. 질그릇은 조합을 이루는데 호리병, 단지, 대접이 한 조합을 이루고 다른 한 조합은 호리병, 단지, 보시기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질그릇은 머리 부분과 발 밑에 놓여져 있다. 석기는 날 부분을 문쪽으로 향하게 하여 머리부분에 놓여져 있다. 짐승뼈는 사슴, 돼지, 개 등의 아래턱뼈였다.

대표적인 유물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의 종류는 단지, 병, 대접, 대야, 보시기, 세발술, 시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기물 중에서 세발기물은 무덤에서는 보이지 않고 집자리에서만 보이는데 세가랑이술은 두 곳 모두에서 보이지 않았다. 재질은 모래가 섞인 홍갈색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 회갈색이 많았다. 후기에는 작은 양이지만 흑도가 출현한다. 이 문화 질그릇의 특징은 거의가 민무늬인데 일부 그릇에서 무늬를 볼 수 있었다. 무늬의 종류는 동그라미무늬, 구멍무늬, 선무늬, 손톱무늬, 물결무늬, 덧띠무늬 등이 있는데 기물의 아가리 부분이나 어깨 부분에 새겨져 있다. 그릇은 접입술과 얇은 굽을 만들고 그릇 몸통 부분에 손잡이 형태의 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기물 중에는 다른 형태의 손잡이 달린 특수한 경우도 있었다. 그릇을 만든 방법은 손으로 만들었는데 감아올리기 방법으로 주로 만들었다.

이 문화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3300년 정도의 긴 문화로 요동지구의 청동기시대문화 상한이 기원전 2000년 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이 문화의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 요동평지문화

(1) 新樂上層文化

이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은 遼寧省 瀋陽市 新樂유적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유적에서는 하층과 상층의 문화양상이 달라, 하층은 신석기시대문화로 新樂下層文化, 상층은 청동기시대문화로 新樂上層文化라고⁴⁾ 부른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질그릇들 가운데 삼족기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삼족기들은 주로 민무늬가 많았고 만든 솜씨가 매우 거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릇의 종류는 세발술, 세가랑이술, 시루술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그릇들이 확인된 것을 고려해보고, 주변 문화권과 비교해볼 때 이 문화는 이미 청동기시대로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신락상층문화가 하나의 독립된 문화 명칭으로 이름이 붙어있지만 현재의 조사결과로 볼 때는 그 분포범위가 매우 좁으며 그 선후의 계승성이 뚜렷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어느 특정 권력집단이 독립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4) 曲瑞奇·瀋長吉, 「瀋陽新樂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8년4기.

(2) 高台山文化

瀋陽서북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高台山文化”이다. 이 문화 요소가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3년 古台山남쪽 구릉에서 7기의 무덤을 발굴하면서부터이다. 이 문화의 요소를 알아보도록 한다.

주요한 유적은 新民 高台山유적, 公主屯 後山, 彰武縣 平安堡, 法庫 灣榆街, 阜新 平頂山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집은 움집과 지상식이었으며 벽돌을 사용하여 지은 집도 있었다. 집밖에는 긴 구덩이나 흙벽을 쌓은 곳도 있었는데 이는 담장 내지는 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면을 보면 원형, 타원형, 방형 그리고 불규칙한 형태가 있었는데 주요한 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다.

무덤은 장방형의 움무덤이 대부분이었다. 아주 적게 어떤 무덤에서는 이층대가 있는 것도 있었으며 나무덧널을 사용한 무덤도 있었다. 장례는 흙무덤에 모로굽은장과 바로 누운장이 대부분이었다. 무덤의 꺼묻거리의 특징은 취사기인 삼죽기는 거의 꺼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친구인 호리병이나 단지를 서로 포개어 꺼묻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릇의 종류는 시루솥, 세가랑이솥, 세발솥, 보시기, 굽보시기, 호리병, 단지, 대접, 손잡이 접시 등이 대표적인 기물이다. 이러한 기물들은 전 문화기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릇의 쓰임새를 보면 삼죽기를 위주로 하는 취사기이며 다른 한 계통은 친구를 하는 계통이다. 삼죽기의 특징을 보면 요서지방에서 보이는 공죽계통도 보이지만 주로 대죽형태의 삼죽기가 많이 보인다. 특히 시루솥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리가 얇아진다. 세가랑이솥은 보면 가랑이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과 동시에 배 부분이 곧은 배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문화와 주변 문화를 나누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물의 어깨 부분이나 배 부분에 귀가 달리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삼죽기만이 갖는 현상은 아니다. 기물이 발견되는 중에 세발솥이 극히 적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다.

무덤의 꺼묻거리는 호리병과 단지가 전체 발견기물의 30%정도 되었다. 이 기물들의 한 특징은 질그릇에 붉은 색의 옷을 한 겹 더 입힌 것이다. 이를 “紅衣陶”라 한다. 이 질그릇은 거주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호리병이나 단지의 경우는 목이 긴 특징을 갖는다. 전형적인 기물들의 아가리는 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친구의 특징은 요동지역의 특징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특징은 민무늬가 성행하며 간혹 앞서 말한 “홍의도”가 문화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청동기의 발견은 많지 않고, 조그만 귀걸이나 장식품등 만이 발견되었다.

이 문화의 연대는 기원전 19세기 전후에 기원하여 기원전 13세기 전후하여 쇠퇴한 문화로 보여진다.

3) 遼東半島지역

요동반도의 남단은 일본이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 대초 일본의 고고학자 鳥居龍藏이 이 지역을 조사하면서 일본학계에서는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이어 30년대에 들어 발굴을 하기 시작하여 나름대로 연구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요동반도 남단은 중국 학계에서 고고문화의 지역적인 분류를 할 때는 의례이 독립적인 한 구역으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우선 지역적으로 산둥반도와 바로 연결해 있어

산동반도 문화의 영향이 어디에 다다랐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고, 다른 하나는 당지문화와 요동반도 북쪽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 산동반도 지역 문화가 결합하여 어떠한 문화를 발전시키나하는 문화 교류사적인 면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점은 이 지역만이 갖는 특수한 문화현상으로 문화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동반도남단의 청동기 개시연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다.

大嘴子유적에서 찾아진 구리 청동 꺾창을 근거로 하여 雙砬子1기문화 시기인 기원전 2500년 전후로 보았다.⁵⁾⁶⁾ 이 견해에 대하여 朱永剛은 문화 발전단계를 들어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⁷⁾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산동지역과 문화교류를 들면서 岳石文化의 영향을 받는 “雙砬子二期文化”에서 비로소 청동기시대에 진입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 견해는 중국 고고학계에서 대체로 통용되는 견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실물을 근거로 보면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후자 쪽에 그 가능성을 더 두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여대지구의 청동기 시대문화는 문화특징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각 문화시기의 간단한 특징에 대하여 간단 간단하게 알아보자.

(1) 雙砬子一期文化

대표적인 유적은 雙砬子유적 1期, 于家村 下層, 大嘴子1期, 郭家村2期, 小珠山3期, 上馬石2期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집자리는 두칸식의 반움집이었다. 평면은 장방형이다.

유물을 볼 때 역시 가장 많은 것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을 보면 가는 모래가 섞인 흙을 사용하고 그릇의 두께는 두꺼운 편이다. 색깔은 흑갈도가 위주이고 흑도 그리고 붉은 갈색순이다. 거의가 손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감아올리기 방법이었다. 간혹 아가리 부분에 수레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표면은 같이 빚을 낸 것이 주류를 이루고 무늬는 돌새긴 줄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점무늬, 새긴 줄무늬, 민무늬순이다. 종류로는 단지, 호리병, 보시기, 잔, 손잡이 접시 등이 있었다. 질그릇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라진 아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화에서 보이는 한가지 특이한 것은 彩繪陶가 보인다는 것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채회도는 요서의 夏家店下層文化, 산동의 岳石文化 그리고 이 문화에서 보인다. 이 문화에서 보이는 채회도는 붉은색, 흰색 그리고 황색 등이 주종을 이룬다. 무늬는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 그리고 기하무늬 등을 볼 수 있었다.

이 밖에 그물추와 가락바퀴 등을 볼 수 있었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대취자1기에서 보이는 돌꺾창이 있는데 날 부분을 볼 때 청동꺾창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꺾창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 하겠다.

청동기로는 유일하게 대취자1기에서 보이는 꺾창이 한 점 있었다. 이 꺾창은 꺾창의 변화과정을 볼 때 초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陳國慶·華玉冰, 「大連地區早期青銅時代考古文化」, 『青果集』 吉林大學校 考古學系成立 二十周年 考古論文集-知識出版社, 1993.

6)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2000.

7) 朱永剛,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단계와 문화계통」, 『박물관기요』,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7년.

이 문화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4025±95년 무렵의 문화이다. 그렇다면 기원전 20세기 전후의 문화로 볼 수 있다.

(2) 雙砬子二期文化

여기에 속하는 문화층은 쌍타자1기문화의 위층에 속하는 유적들이라 봐야 할 것이다. 질그릇은 진흙질과 가는 모래가 섞인 것이 계속적으로 유행하며, 흑도와 흑갈도가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든 방법은 손으로 만든 것에서 벗어나 바퀴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의가 간질 그릇이고 무늬는 동새긴줄무늬와 새긴줄무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민무늬도 많이 있었다. 또한 그릇의 목부분에 볼록 점무늬선이 띠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릇의 종류는 단지, 세발술, 시루술, 보시기, 손잡이 접시 등이 주로 보이고 있다. 이 시기 기물 가운데 뚜껑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뚜껑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발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리가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문화에 관한 연대 측정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 문화 요소와 주변지역 문화요소를 비교해봤을 때 산동의 악석문화 연대가 기원전 1900~1700년 전후로 나타났다. 이들 두 문화간에 교류 현상을 봤을 때 거의 같은 시기였고 또한 지층관계를 고려해볼 때 쌍타자1기문화가 기원전 2000년 전후 그리고 쌍타자3기문화가 기원전 1300~1100년 전후로 볼 때, 쌍타자2기 문화의 연대는 기원전1600~1400년 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본다.

4) 고인돌문화

만주지역에서 고인들이 확인되는 지역은 동쪽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⁸⁾ 고인돌 자체가 큰돌을 사용하여 만드는 일종의 건축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적인 석재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들이 발전한 지역은 당연히 석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은 만주지역에서는 요동산지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고인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역시 요동산지였다. 고인들이 지어진 곳은 대부분이 얇은 산의 정상이나 구릉성 산지에 또는 평지이다. 이 고인돌이 분포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대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고인돌이 건축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포하는 밀집도를 보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주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많은 수가 한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건축물의 용도가 단 한 가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몇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여러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들 의견들 가운데 대부분은 무덤 또는 제단기능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라 볼 수 있다. 이 들 고인돌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瓦房店 松樹鎮 台子촌 고인돌유적은 탁자식으로 멀리서도 확인되는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은 남, 북, 서쪽이 트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고인돌은 외형적인 규모나 위치한 지세 조

8) 河文植, 「古朝鮮地域의 고인돌연구」, 1999, 백산자료원.

건 그리고 후대에 계속적으로 제의가 행하여진 점 등으로 보아 제단의 기능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바로 옆에 太散寺가 있다.

蓋州 石棚山 고인돌유적이 위치한 지역 역시 사방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고인돌은 지금까지 발견된 요동반도의 요동지역의 고인돌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처음 만들어진 이후 묘우 등의 종교 장소로 이용되어 절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꺾돌과 덮개돌에 기호와 얼굴이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최근까지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향을 피우고 소원을 기원한 흔적이 남아 있다.

大石橋 石棚峪 고인돌유적은 덮개돌의 남쪽과 북쪽 끝에서 간 홈이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덮개돌을 운반할 때 보다 쉽게 옮기기 위해 줄 같은 것으로 묶어서 운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덮개돌과 북쪽 꺾돌이 맞닿는 곳에는 한 줄의 불그스름한 선이 있는데 고인돌을 세울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요동반도지역에는 많은 고인돌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요동지역의 후기 청동기문화 -비파형동검문화시기-

요동지역에서 비파형동검문화시기로 들어가는 것은 기원전 11세기 무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西團山文化의 한 계통인 星星哨유적에서 발견된 검과 요동반도 남단의 新金 쌍방유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요동지역은 비파형동검문화시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화시기의 무덤 형식은 돌을 많이 이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무덤의 형식은 돌 널무덤, 고인돌, 돌무지무덤 등이 있다. 출토유물은 생활필수품으로 보이는 것은 질그릇과 장신구, 그리고 청동기로는 비파형동검과 도끼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일부 무덤에서는 여러꼭지 잔줄무늬거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질그릇은 호리병과 단지 등이 많았다. 무늬는 민무늬그릇이 주로 많았는데 간혹 줄무늬 계통인 絃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동기 가운데 비파형동검은 각 시기별로 다른데 큰 특징을 말하면 초기의 것이 검의 너비가 넓고,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길이가 길어지며 너비가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꼭지 잔줄무늬 거울은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문화의 독특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이 문화시기에 속하는 유적들은 接官廳, 二道河子, 岡上, 婁上, 雙房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동반도 남단의 雙砬子三期문화도 이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화시기의 연대는 기원전 12세기 무렵부터 기원전 5세기 무렵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문화가 결속되면서 세형동검문화시기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유물들의 특징은 이 비파형동검문화시기의 특징을 설명한 것인데, 이 특징들은 요동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그리고 요서지역과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요서지역과의 관계는 동북아시아고대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遼西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

1. 요서지역의 자연환경

遼西지역은 행정 구역상으로는 遼寧省 西部지역과 內蒙古 東南部지역을 말하는데, 이 두 지역의 중간 부분에 努魯兒虎山이 동북에서 남서로 산맥을 이루며 길게 뻗어 있다. 이 산맥을 동서로 하여 서쪽은 海拔 5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인 동시에 초원지대이고 동쪽은 200미터 이하의 평원지대이다. 이 산맥을 동서로 하여 문화현상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요서지역의 전기청동기문화

1) 夏家店下層文化

요서지역에서 기원전 20세기경에 발전한 청동기시대문화는 夏家店下層文化이다.⁹⁾

이 문화가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이다. 그러나 당시는 秦, 漢시기의 유적으로 생각하였었고, 그후 1960년 內蒙古 赤峰市 夏家店유적이 발견된 후부터 청동기시대문화로 보게된 것이다.¹⁰⁾

이 문화의 기원연대는 기원전 24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와해되는 시기는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한 시기이다. 분포범위는 내몽고 동남부지역과 요녕성 서부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지역이다.

이 문화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지는 집, 무덤, 城 등이 조사되었다.

집은 움집, 반움집, 지상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상식 가운데 어떤 집은 돌로 담을 쌓았고, 실내를 전후로 나누어 사용한 집도 있었고, 또 어떤 집은 이중으로 담을 쌓아 견고하게 만든 것도 있었다. 움집에는 壁龕을 둔 집도 있었다.

무덤은 일반적으로 움무덤인데 움의 깊이가 깊은 편이다. 어떤 무덤은 움을 파고 나무로 묘실을 만든 것도 있었다. 큰 무덤에는 무덤 안에 壁龕을 만들어 壁龕속에 꺼묻거리를 묻었다. 또 어떤 무덤에는 무덤무지에 꺼묻거리를 묻은 무덤도 있었다. 큰 무덤일수록 꺼묻거리가 화려했고 수량도 많았다.

조사된 城은 토성도 있고 돌과 흙을 같이 이용한 혼축성도 있었다. 이들 성이 자리한 지역은 거의가 뒤에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바라보며 양옆으로는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계곡이 흐르는 지역이었다. 큰 것은 약 3만평정도이고 작은 것은 몇 천평 정도의 것도 있는데,¹¹⁾ 중요한 것은 큰 성을 주위로 작은 성이나 또는 성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형태의 거주지들이 모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견된 유물들은 질그릇, 청동기, 옥기, 돌연장, 점뿔 등이 있다.

질그릇은 세가랑이술, 세발술, 그리고 尊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한 특수한 예로 무덤에 꺼묻거리로

9) 복기대,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연구』, 백산자료원, 2002년.

1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內蒙古赤峰樂王廟, 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年 第2期.

11) 徐光翼, 『赤峰英金河, 陰河流域之石城遺址』, 『中國考古學研究』 文物出版社, 1986.

문헌 기물들 가운데 "彩繪陶"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 그릇들의 특징은 이 문화와 다른 문화를 구별하는데 근거가 되는 동시에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채회도의 무늬는 여러 가지가 골고루 나타나는데 특징적인 것은 기본 바탕이 기하무늬인 것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彩繪陶는 中原 지역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遼東半島의 雙砬子2期문화와 山東半島의 岳石文化에서 약간 발견되었다. 이 彩繪陶에서 사용한 색은 붉은색·검은색·흰색·주황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돌연장으로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어깨삼·돌호미·돌칼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귀중품으로 보이는 옥기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도끼, 고리, 새모양 등 여러 가지였다. 만든 특징은 대칭법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점을 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주로 짐승의 어깨뼈를 사용하였고, 이것을 그슬려 길흉을 판단하였다.

청동기는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작은 기물들이 발견되었고 한 예이지만 큰 꺾창이 발견되었는데 合範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이 문화 사람들에 관한 체질인류학적인 분석을 보면 주로 "古東北類型"과 "古華北類型"으로 나타났다. 이 두 종족 가운데 "古東北類型"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¹²⁾ 이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로 앞으로 중국 동북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문화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유적의 분포관계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청동기시대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유적의 밀집도는 문화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적지의 밀집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赤峰市 敖漢旗에서 조사된 夏家店下層文化의 유적 수는 약 2,200여 개로 집계되었다.¹³⁾ 이외에도 최근에 赤峰市 半支箭河 중류지역에 분포하는 夏家店下層文化 유적을 조사한 결과 140개에 달하는 유적이 발견되었다.¹⁴⁾ 이러한 문화 유적의 분포 밀집도와 또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약 70개에 달하는 夏家店下層文化의 城은 대형집단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문화의 연대는 기원전 24세기경에 시작하여 서기전 15세기 전후에 와해된 문화이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夏家店下層文化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 요서지구 후기청동기문화

1) 夏家店上層文化

이 문화가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하가점하층문화와 같다.

이 문화는 努魯兒虎山서쪽에서 하가점하층문화에 이어서 발전한 문화이다.

유적으로는 집 자리가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거의가 움집이다. 어떤 집은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

12) 朱泓, 「중국 동북지구의 종족」 『博物館紀要』 13집,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13) 敖漢旗의 면적은 18,000평방키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1/5만한 크기이다. 『文物工作十年』 (1979~1989), 文物出版社, 1990, 52쪽 참조.

1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所, 『半支箭河中游先秦時期遺址』, 科學出版社, 2002, 참조. 참고로 덧붙이면 半支箭河는 총 길이는 66킬로미터이다. 이 가운데 조사한 면적은 약 20킬로미터에 221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넓이다.

하기 위해서인지 돌로 담을 쌓은 집도 있었다. 집안에서는 간혹 기물과 주검이 버려진 집도 있었는데 하나에서 셋까지를 버린 것을 볼 수 있었다.

제사유적도 발견되었는데 규모가 아주 크다. 이 유적이 자리한 지역은 克什克騰旗 龍頭山으로 海拔 900미터 산상에 자리잡고 있는데 매우 큰 유적이었다.¹⁵⁾ 발굴 결과를 통해 볼 때 단시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매우 오랫동안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는 사람을 죽여 제사에 사용한 제사구덩이도 발견되었다. 이 제사구덩이를 가지고 유추해볼 때 다른 지역 구덩이에서 발견된 주검들도 같은 기능이 아닐까 하는 추측해볼 수 있다.

무덤은 여러 형태가 골고루 발견되었는데 무덤안 꺼묻거리는 매우 풍부한 것을 볼 수 있다. 유물로는 질그릇과 청동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질그릇은 취사기에 속하는 세발 그릇인 세가랑이술·세발술, 그리고 찬구인 바리·대접·손잡이접시·대야·단지 등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붉은 간 그릇이며 주로 민무늬이고 기물의 위 부분에 귀가 달린 기물이 많았다.

청동기는 주로 무덤의 꺼묻거리였던 것이 많이 출토되었다. 그 종류를 보면 鋤柄式短劍·匕首式短劍·琵琶型銅劍·단추형거울·直刃斧·鳥型장식품 등 일반 생활에 필요한 청동기들이 많았고 특수층의 무덤으로 보이는 무덤에서는 여러 종류의 靑銅禮器들이 출토됐는데, 이 가운데는 中原지역 禮器와 이 문화의 독자적인 禮器가 같이 출토되었다. 비례적으로 볼 때는 이 문화의 독자적인 청동 禮器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오르도스식이라 불리는 북방 초원 양식 청동기가 많았는데 이는 夏家店上層文化의 고유한 양식들이었다.

이 문화 시대는 서기전 14세기 전후에 시작되어 서기전 7세기 전후에 와해된다.

2) 魏營子文化

魏營子文化가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이다.¹⁶⁾ 80년대 중반에 이 문화가 이해되기는 이 지역 초기 청동기문화인 夏家店下層文化와 夏家店上層文化의 문화적 공백기를 매꿔주어 夏家店下層文化→魏營子類型→夏家店上層文化라는 이 지역 문화를 파악한 것이다.¹⁷⁾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魏營子文化와 夏家店上層文化는 지역적으로 努魯兒虎山동서 지역에서 병행 발전한 문화이며 기원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원하지만 와해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¹⁸⁾

이 문화는 기원전 14세기 무렵에 시작되어 서기전 10세기 중엽에 와해되는 문화인데 아쉽게도 다른 문화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다른 문화유적에 비하여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 요소를 볼 때 무덤은 움무덤·돌널무덤·돌덧널무덤 등이 있다.

이 문화 초기 기물은 세발기물이 유행하던 것이 후기에 들어서는 서서히 퇴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이 가랑이가 좀 낮고 빛깔은 붉은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재질면에서 모래가 점점

15)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克什克騰旗龍頭山遺址第一、二次發掘簡報」, 『考古』, 1991년 8기 참조.

16) 1)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遼寧朝陽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 1977년5기 참조.

2) 省文物普查訓練班, 「1979年朝陽地區文物普查發掘的主要收穫」, 『遼寧文物』, 1980년1기 참조.

17) 郭大順,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輯』1, 蘇秉琦主編 文物出版社, 1987년 참조.

18) 복기대, 「魏營子文化의 최근 성과와 해석」, 『先史와 古代』 제11호, 韓國古代學會, 1998년.

많아지고 있다. 무늬는 일부 繩文과 “花邊”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없다. 질그릇의 종류는 세가량이슬 · 세발술 · 단지 · 바리 · 굽바리 · 호리병 등이 많이 보인다. 청동기는 칼, 장식품 등과 수레 부속품들이 발견되었다. 수레 부속품의 발견은 당시 이 문화에서 마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凌河文化

릉허문화의 요소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문화권역으로 설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 문화의 유적 가운데 집자리는 아직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성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되었다.¹⁹⁾ 성이 자리한 지역은 뒤로는 산을 의지하고 앞으로는 하천을 바라보는 이 지역 전통적인 자리 선택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성은 토성으로 벽은 사다리꼴이고 전체 규모로 볼 때 큰 편은 아니었다.

무덤은 돌덧널무덤 · 돌덧무덤 · 움무덤 등이 골고루 발견된다. 주검을 묻는 방식은 어느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껌묻거리가 있는 무덤도 있고 없는 무덤도 있다. 껌묻거리는 질그릇 · 돌연장 그리고 청동기가 있다. 껌묻거리를 무덤 무지에 묻는 무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 초기 청동기문화인 夏家店下層文化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껌묻거리 매장 풍습의 하나이다.

출토 유물은 그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적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질그릇과 청동기이다. 질그릇은 거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작은 단지와 호리병계열 그리고 바리 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잔과 대접이 많이 출토되었다. 무늬는 거의 없으나 부분적으로 승문이 있었다.

청동기는 그 쓰임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파형동검, 손잡이, 끌, 선형부, 여러 꼭지 잔줄무늬거울, 각종 장식품, 마구 등이 있다.

그리고 생활 용기가 있는데 이들은 외부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비파형동검은 지층관계나 유형학적으로 볼 때 초기 양식인 서기전 10세기 중엽부터 후기 양식인 서기전 4, 5세기까지 골고루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中原지역이나 努魯兒虎山서쪽에서 많이 보이는 대형 용기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시대 무덤들에서 발견된 인골들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古東北類型”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⁰⁾(참조: 남만주지역청동기시대문화분포도)

IV. 남만주지역의 청동기문화와 한국상고사와의 상관관계인식

필자는 위에서 남만주지역의 각 청동기시대문화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화들이 한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지역적인 관점과 시대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봐야 할 것이다.

지역적인 문제는 요동과 요서에 대한 결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지역으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의 견해로 나누어 봐야 할 것이다.

19) 朱永剛·王立新, 「遼寧錦西部集屯三座古城址紀略及相關問題」, 『北方文物』, 1997년2기 참조.

20) 朱泓, 「中國東北지역의 種族」, 『博物館紀要』 1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참조.

연대	지역	요동 지역			요동 반도 남단	요서 지역
		요동산지	요동평원	고인돌		
B.C 24 J 15		마성자문화	고태산문화	고인돌무덤 J 8·7	쌍타자 1기 문화	하가점하층문화
B.C 15 J 7		비파형동검문화			비파형동검문화	위영자문화
						하가점상층문화
B.C 7 J 4				세형동검시기		?

〈 남만주지역 청동기시대 문화분포도 〉

1. 요동지역

먼저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에 관해서 살펴보자.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에 대하여 중국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들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濊” 또는 “貊”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馬城子文化에 대하여는 濊貊계통의 선조들의 문화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요동반도남단의 문화현상에 대하여 한반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²²⁾ 林溪이나²³⁾ 翟德芳은²⁴⁾ 비파형동검문화는 고조선 또는 예, 맥, 진번계통으로 보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한국학자들의 대부분은 요동지역의 후기청동기시대문화는 고조선으로 보고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근거는 문헌기록과 고고학적으로는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일부 청동기의 분포지가 요동지역과 한반도와 같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고조선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문식은 요동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을 고조선의 무덤양식으로 보았는데, 이는 곧 이 지역이 고조선지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위와 같은 견해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시대의 선후를 떠나 한국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요서지역

요서지역은 전기문화와 후기문화로 나누어 봐야 할 것이다.

1) 전기청동기문화

중국학계의 견해이다. 이 문화의 면모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0년 內蒙古 赤峰市 夏家店마을에서 발굴되면서였다.

처음 이 문화의 요소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中原 龍山文化와 관련이 깊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는 夏鼐이다.²⁶⁾

鄭紹宗은 이 문화를 商문화의 영향을 받은 변방 문화로 보았는데,²⁷⁾ 이러한 관점은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관점이 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다 그때까지 쌓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한 결과 이전과는 다른 견해가 제기되었다.

2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游存, 文物出版社, 1994.

22)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2000, 271쪽.

23) 林溪, 『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1980년 1기.

24) 翟德芳,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 『考古學報』, 1988년 第3期.

25) 河文植, 『古朝鮮 地域의 고인돌 研究』, -이대 한국문화연구원총서, 백산자료원, 1999.

26) 夏鼐, 『我國近五十年的考古新收穫』 『考古』, 1964년 10기 참조.

27) 鄭紹宗, 『有關河北長城地域原始文化類型的討論』 『考古』, 1962년 12기 참조.

卜工은 燕山南麓의 문화가 肅慎족일 것으로 추측을 하면서 그 북쪽은 동이계통의 문화로 보았다. 북공의 견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문헌기록과 질그릇의 형태에 따라 문화권을 나누었는데 그가 제시한 동이라는 개념은 한국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계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²⁸⁾

何玄武는 이 문화는 당시 선대문화와 中原문화가 결합되어 발전한 문화로 인식하였다.²⁹⁾

郭大順은 이 문화의 형성과정과 전과과정, 그리고 후대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이 문화는 新石器文化인 紅山文化와 小河沿文化의 요소들을 이어 받고, 동시에 이웃 문화들의 일부 요소를 흡수발전시키는 문화로 보게 되었다. 이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문화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는데 그 하나가 商문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동북문화의 전통을 만든 문화로 인식하는 단계까지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³⁰⁾ 그가 말한 동북문화의 전통은 후대에 나타난 山城 등이 그 예이다.³¹⁾

한국학계는 어떠한 견해들을 알아보자. 한국 학계에서는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윤내현이다.

윤내현은 夏家店下層文化는 고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주장하였다.³²⁾

韓昌均은 이 문화의 특징을 분석하여 고조선과 대입을 시켰는데 그는 이 문화를 고조선2기 문화에 편입시켰다.³³⁾

복기대는 이 문화에 대하여 中國 동북지역의 독자적인 청동기문화이며 결코 中原지역의 문화와는 친연성이 크지 않음을 강조였고,³⁴⁾ 한국 상고사를 풀어내기는데 중요한 문화임을 주장하였다.³⁵⁾

宋鏞晟은 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戎狄” 또는 “戎胡”를 형성하는 선조들의 문화로 인식하였다.³⁶⁾ 위에서 간단히 제시한 견해는 한국 학계의 견해였다.

2) 후기청동기문화

후기 청동기문화 중에 주목할 것은 룡하문화이다. 이 문화는 한국학계에서는 이른바 夏家店上層文化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유물은 비파형동검과 그와 관련된 것들이다.

中國 학계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자.

중국에서는 1949년 이전에도 비파형동검이 발견되었다. 그 당시는 이 검의 기원이나 어느 민족의 유산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58년 주위에 의하여 遼寧省 朝陽縣 十二台營子무덤이 발굴 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이 검의 연대 및 이 문화를 남긴 민족에 대하여 연대는 春秋후기 또는 戰國시대로 보았고 민족은 東胡일 것으로 추측하였다.³⁷⁾

28) 卜工, 「燕山地區夏商時期的陶器滲系」, 『北方文物』, 1989년 2기.

29) 何賢武, 「試論遼西地區古代文化的發展」, 『中國考古學六次年討論文集』, 文物出版社, 1987년.

30) 郭大順, 「遼河유역 신석기시대 및 初期청동기유적에 대한 해석」, 『博物館紀要』, 檀國大學校 石宙善記念博物館, 2000년, 75쪽.

31) 郭大順, 「遼河유역 신석기시대 및 초기 청동기유적에 대한 해석」, 『博物館紀要』 제15집, 檀國大學校 石宙善記念博物館 2000년.

32)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년 참조.

33) 한창균,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이론」, 『國史館論叢』, 國史編纂委員會, 1992년, 13~33 쪽.

34) 복기대, 「夏家店 下層文化의 기원과 사회성격에 관한 이론」, 『韓國上古史學報』 제19호 1995년.

——,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연구」, 백산자료원, 2002.

35) 복기대, 「요서지역 청동기시대문화의 역사적 이해」, 『단군학연구』, 1호.

36) 송호정,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

烏恩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을 지구적인 문화권으로 구별하면서 遼西지역에 발견된 비파형동검과 동반 출토된 유물들을 하가점 상층문화에 편입시켰다.³⁸⁾ 이를 기점으로 하여 요서지역 비파형동검을 대표로 하는 문화를 하가점 상층문화에 편입시키는 공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林溪은 요서지역 가운데 努魯兒虎山이동의 朝陽지역 일대의 비파형동검을 대표로 하는 문화는 결코 하가점상층문화에 속하지 않으며, 이 문화의 주인공은 예맥·고조선계통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³⁹⁾

靳楓毅는 이 지역 하가점상층문화를 몇 지역으로 분구를 하였는데, 조양지역을 “十二台營子類型”으로 구분하면서, 그 민족은 東胡族으로 보았다.⁴⁰⁾ 이러한 靳氏의 견해는 한국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翟德芳은 努魯兒虎山이동 조양지역의 이 시대문화를 하가점상층문화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파형동검은 임운과 같이 예맥 또는 고조선계통으로 보았다.⁴¹⁾

朱永剛은 유물의 특장상 하가점상층문화귀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근풍의 관점에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⁴²⁾

한국학계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다.

이 문화에 관한 자료는 김원룡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遼寧省 朝陽縣 十二台營子무덤 발굴 성과를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 출토유물과 비교 연구를 하면서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유적을 中國계통이 아닌 오르도스식 북방청동기문화로 보았으며, 이 유물의 주인공들은 東胡족으로 보았다.⁴³⁾ 金元龍의 견해에 따르면 한반도에 들어온 청동기는 非中國계인 북방계 청동기이며 연대는 서기전 5, 6세기 이전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김원룡의 견해는 당시 한국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金貞培는 문헌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이용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韓民族의 주체 구성원을 濊貊族으로 보았고, 遼寧지역에서 찾아진 비파형동검으로 대표되는 문화를 “濊貊1期文化”로 분류하였다.⁴⁴⁾

李康承은 이 지역의 문화를 하가점상층문화로 인식하면서 이것을 東胡문화로 인식하였다.⁴⁵⁾

金廷鶴은 中國 동북지역의 비파형동검 문화시기를 “遼寧青銅器文化”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이 시대 滿州지역 청동기문화는 거시적으로는 공통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지구적으로 문화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朝陽지구 十二台營子무덤의 연대를 요서지역 전기 청동기문화로 분류하며 “朝陽文化”라 하였고, 이 무덤의 주인공을 조선족 계통으로 보았으며, 이 문화를 고조선을 盟主國으로 하는 연맹국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으로 추측하였다.⁴⁶⁾

韓昌均은 이 문화시기를 古朝鮮3期 문화에 속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⁴⁷⁾

尹乃鉉은 이른바 中原문화와 고조선문화는 현재 河北省을 西北에서 시작하여 남동으로 흘러 渤海

37) 朱貴, 「遼寧朝陽十二台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년 1기.

38) 烏恩, 「關於我國北方的青銅短劍」, 『考古』, 1978년 5기 참조.

39) 林溪, 「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1980년 1기.

40)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 상, 하 『考古學報』, 1982년 4기, 1983년 1기.

41) 翟德芳,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 『考古學報』, 1988년 第3期.

42) 朱永剛, 「夏家店上層文化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輯』, 蘇秉琦主編, 文物出版社, 1987년 참조.

43) 金元龍, 「十二台營子的 青銅短劍墓」, 『歷史學報』, 1961년, 12期.

44)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년.

45) 李康承, 「遼寧地方的 青銅器文化」-青銅器遺物로 본 遼寧青銅器文化와 夏家店上層文化의 비교연구- 『韓國學報』 6호, 韓國考古學會, 1979년.

46) 金廷鶴, 「古朝鮮의 起源과 國家形成」,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1990년 참조.

47) 韓昌均,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 『國史館論叢』 國史編纂委員會, 1992년.

灣으로 흘러 들어가는 灤河유역을 경계로 하여 灤河 이동지역이 고조선문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 과정에서 그는 이 시기문화를 고조선 중, 후기 문화로 보았다.⁴⁸⁾

이형구는 비파형동검을 “渤海沿岸式 청동단검”이라 이름지어 부르고 그 검의 분포지가 고조선강역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⁴⁹⁾

복기대는 이 지역 문화는 문화의 친연관계는 遼東지역 문화요소와 가까운 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문화권과 가까운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⁵⁰⁾ 즉 고조선계통임으로 보고 있다.

宋鎬晟은 中國 동북지역 문화의 권역을 크게 遼河이동과 이서로 구별하여 遼西지역은 하가점상층 문화지역으로 구별하고 민족은 山戎계통으로 보았다.⁵¹⁾

이 장에서 남만주지역의 청동기문화와 민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위에서 알아본 결과는 학자들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들이고 학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결과들이다.⁵²⁾ 이들 결과들을 지역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요동지역은 시대의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하여는 상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서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점을 보면,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A: 하가점하층문화가 중원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속하는 것은 하나, 정소중 등이다.
- B: 하가점상층문화를 북방민족으로 보는 견해이다. 주귀, 오은, 근풍의, 김원룡, 이강승, 송호정 등이다.
- C: 하가점하층문화를 독립적인 문화로 보는 견해이다. 하현무, 곽대순이 이에 속한다.
- D: 룡하문화를 동이, 고조선, 진번, 예맥 등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 역시 발전과정에 이른바 중원지역의 문화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견해에 속하는 것은 임운, 적덕방, 김정학, 윤내현, 김정배, 한창균, 이형구, 복기대 등이다.

A견해에 대한분석이다. 하나, 정소중의 견해는 하가점하층문화가 처음 발견된 시점의 주장이었는데, 당시 하가점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과 龍山文化후기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유사한 점은 삼족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후 발견되는 삼족기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용산문화의 변종이나, 또는 상문화의 지방형이라는 견해는 더 이상거론이 되지 않고 있다.

B의 견해이다. 주귀, 오은, 근풍의, 김원룡, 이강승, 송호정 등의 견해이다. 이들의 견해는 하가점상층문화를 말한다. 중국학계에서는 이 문화의 지역적인 차이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최근에 들어 하가점상층문화는 노노아호산의 서쪽에 분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동쪽은 룡하문화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운이나 적덕방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실제 근풍의나 오은도 노노아호산 동쪽과 서쪽의 문화차이에서는 인정

48) 윤내현, 「고조선연구」, 一志社, 1994년.

49) 李桐求, 「韓國 古代文化的 起源」, 까치, 1991년.

50) 복기대: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의 역사적이해」 「단군학연구」 1, 1999.

51) 宋鎬晟,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

52) 위에서 예를 든 것 이외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본문에서 예를 든 결과들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을 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하가점상층문화라는 한 지역을 두 문화권으로 나뉘므로 민족문제에 관해서도 정리가 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B와 D의 차이는 바로 노노아호산동서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서쪽은 하가점상층문화, 서쪽은 룡허문화라는 문화권역을 획정한 바 있다.⁵³⁾ 중국학자 가운데 D의 견해자들은 필자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권역이 나누어진다면 그간의 하가점상층문화는 북방민족의 분포지로 볼 수 있고, 룡허문화지역은 고조선계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두 문화의 차이는 현격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가점상층문화는 초원지대의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고, 룡허문화는 요동이나, 더 멀리 한반도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중원지역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인 독자적인 문화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독자적인 문화라는 것은 고조선, 또는 이와 관계가 깊은 민족들의 문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장에서 남만주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의 역사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만주의 청동기문화는 큰 틀에서 볼 때 이른바 중원지역의 문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북방지역 즉 만리장성의 북쪽 지역인 대초원지대의 문화와 관련을 두고 있다. 이들 역시 중원지역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한국 역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남만주의 청동기시대는 한국사의 범주 또는 적어도 한국민족과 역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주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약문

남만주지역의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24세기 무렵에 시작되었다. 이 문화들을 소유했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었나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문화들이 발견되었을 초기에는 대부분이 중원문화와 깊은 관계를 두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중원문화의 영향을 받은 북방민족의 문화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것이 남만주지역의 고고학자료들이 점점 쌓이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해석은 만주지역의 고유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만주지역의 고유문화로 본다면 이들 문화의 주인공들도 중원지역이 아닌 만주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고대문헌이나 전설 등을 볼 때 만주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의 주인공은 한국사의 여명이었던 고조선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남만주의 청동기시대문화는 한국민족과 역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계의 주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제어: 남만주, 청동기시대문화, 중원문화, 고조선, 한민족의 기원.

53) 복기대, 「 룡허문화 』 『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연구 』, 백산자료원, 2002.

On the Bronze Age Culture and Ethnicity in Southern Manchuria

Pok Kidae (Research Fellow, Suk Joo-Su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The Bronze Age in Southern Manchuria began 24th century BCE. When the Bronze Age culture was first discovered there, scholars often tried to connect it with the Chinese culture or interpreted it as the culture of the Inner Asian people who came under the deep influence of the Chinese. However, with accumulation of new archaeological data, a new interpretation has become possible, and one must recognize it as a unique Manchurian culture. Ancient texts and myths suggest that the Old Chosŏn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the Bronze Age culture in Manchuria. In other words, the Bronze Age culture in Southern Manchuria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ormation of Korean nation and history. The Korean academic circle should pay a close attention to the issue of the Bronze Age culture and ethnicity in Southern Manchuria.

Key words: Southern Manchuria, Bronze Age Culture, Chinese Culture, Old Chosŏn, Origins of the Korean Nation.